

- 주요 뉴스: ECB, 정책금리는 2월과 3월 각각 50bp 인상되어 5월에 정점 도달 예상
 - 미국, 12월 근원 PCE 물가 둔화. 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
 - 미국, 일본-네덜란드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합의
 - OPEC+, 2.1일 회의에서 감산쿼터(일일 200만배럴) 정책을 동결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PCE 물가 둔화 소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호전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물가 둔화 조짐에도 미국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강세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가치는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소폭 상승
독일은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ECB 금리인상 전망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28.95원, -1.20원) 0.1% 하락, 한국 CDS 하락

		1/27일	1/26일	전일대비			1/27일	1/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70.6	4,060.4	0.25%	국채 금리 10y	미국	3.50	3.49	1bp
	유럽	455.17	453.98	0.26%		독일	2.24	2.22	2bp
	중국	휴장	휴장	휴장		영국	3.32	3.32	1bp
	일본	27,383	27,363	0.07%	CDS 5y	한국	39	40	-1bp
	한국	2,484.0	2,468.7	0.62%		중국	22	22	-1bp
	달러지수	101.92	101.84	0.08%	위험 지표	EMBI+	-	366	-
환율	유로화	1.0868	1.0892	-0.22%		VIX	18.51	18.73	-1.17%
	엔화	129.88	130.22	0.26%		WTI유	79.68	81.01	-1.64%
	위안화	휴장	휴장	휴장	원자재	구리	422.3	426.8	-1.05%
	원화	1,231.3	1,230.7	-0.05%		금	1,928.0	1,929.2	-0.0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정책금리는 2월과 3월 각각 50bp 인상되어 5월에 정점에 도달할 전망
 -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 ECB 정책금리인 예금금리(deposit rate)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5월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24년 6월 25bp의 인하가 가능할 때까지 약 1년 간 3.25%의 고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2일 금년 들어 첫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해 12월 약속한 50bp 인상이 기정사실화. 올해 2월 이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는 조짐이나, ECB는 금리인상을 확실히 단행할 것으로 예상
 - 라가르드 총재와 매파적 ECB 위원들은 3월에도 50bp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은 보다 점진적이고 완화적인 통화긴축을 원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46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4명은 절제된 인상폭인 25bp를 전망
 - 2월 회의의 관심사 중 하나는 3월 인상폭이 될 것이며, 아주 약간만 비둘기파적인 시그널을 보내도 시장이 과도하게 완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존재. 유로존 헤드라인 CPI는 11월 10.1% → 12월 9.2%로 감소한데 반해 근원 CPI는 5.0% → 5.2%로 증가해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가중
 - ECB는 다음 주 3월부터 5조유로 규모의 채권 포트폴리오 축소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 보유자산 재투자보다는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롤오버 형식을 선호할 것임. 6월까지 매월 150억유로로 설정된 롤오버 초기 상한선이 3분기에 50억유로 증가하고 연말에 다시 50억유로 증가해 '24년까지 250억유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ECB의 대차대조표는 현재 8조유로 미만에서 연말 6조 9,000억유로, '24년말 6조 1,500억유로, 장기적으로는 5조유로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2월 근원 PCE 물가 둔화. 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
 - 미 상무부, 12월 근원 PCE 물가(yoy)는 4.4%로 전월(4.7%)대비 하락하고 시장의 예상(4.4%) 부합. 지난해 9월 정점(5.2%)에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로 이해

-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4.9로 전월(59.7) 대비 큰 폭 상승하고 예상치(64.6)도 상회. 미시건대는 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2월보다 높아졌으나 역사적 관점에서 낮은 수준이며 전년동월대비 약 3% 낮아졌다고 다가오는 부채한도 협상,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우려

■ 미국, 일본-네덜란드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합의

- 바이든 행정부, 1.27일 네덜란드 및 일본과 논의 끝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합의.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일본의 니콘, 도쿄일렉트론 등은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에 참여할 계획. 다만 실제 수행까지 수개월 소요될 가능성

■ 연준, 물가상승 둔화 신호로 3월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

-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PCE 물가지수(yoy)는 12월 4.4%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PCE 지수(yoy)는 12월 5.0%로 6개월 연속 하락. 이로써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4.25~4.50%→ 4.50%~4.75%)이 유력해졌으며, 3월에도 25bp 인상을 예상하는 시각 증대. 트레이더들은 3월 이후의 금리인상 확률을 1/3 정도로 평가

■ OPEC+, 2.1일 회의에서 감산쿼터 정책을 동결할 전망

- 국제원유시장은 현재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영향과 2.5일부터 시행되는 EU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의 영향을 주시.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일일 200만배럴의 감산규모를 '23년 말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근원 PCE 물가(yoy): 4.4%, 11월(4.7%), 예상치(4.4%)
- 미국 12월 근원 PCE 물가(mom): 0.3%, 11월(0.2%), 예상치(0.3%)
- 미국 12월 PCE 물가(yoy): 5.0%, 11월(5.5%), 예상치(5.0%)
- 미국 12월 개인소비지출(mom): -0.2%, 11월(-0.1%), 예상치(-0.2%)
- 미국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64.9, 12월(59.7), 예상치(64.6)
- 미국 12월 잠정주택판매(mom): 2.5%, 11월(-2.6%), 예상치(-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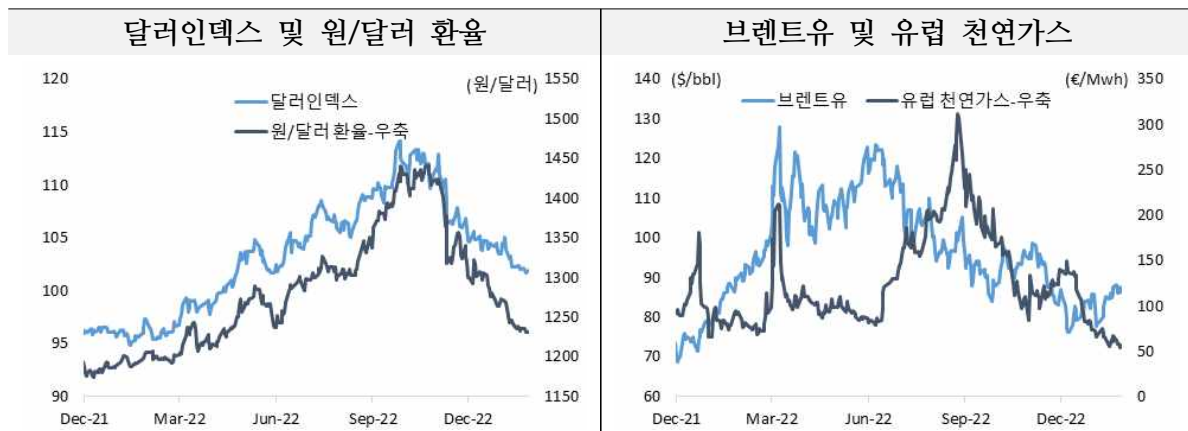
■ 주요 경제 이벤트(1/28 현지시각 기준)

- IMF의 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발표(1/30일)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5, E-mail kimhj@kcif.or.kr